



02월 28일 005면

세계육상 대구유치 활동

## 민주당도 합류

대구시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활동에 민주당도 본격 합류했다.

민주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41차 중앙위원회회의를 열고 당 차원에서 구성한 '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지원특별위원회' 공동위원장에 김성현 대구시당 위원장과 채일병 국회의원(해남-진도)을 임명했다. 또한 김 위원장을 제외한 대구지역 8개 지역위원장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했다.

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는 채 위원장이, 대구 현지에서는 김 위원장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

김 위원장은 "한나라당인 김범일 대구시장과 당은 다르지만, 민생문제 차원에서 국제육상선수권대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"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국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채 위원장은 28일부터 3월7일까지 올해 유럽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영국 버밍햄과 2005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된 헬싱키 등지를 방문, 국제육상경기연맹(IAAF) 라민디아악 회장 등 국제육상계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유치활동을 벌인다. 김상진기자